

중국, PVC 수출 2만톤 기록

Carbide 베이스 생산 증가로 ... 에틸렌 베이스는 인디아 수출

중국의 PVC(Polyvinyl Chloride)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05년 상반기 PVC 수출량이 2만톤을 넘어 2004년 수출실적을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PVC 시장은 2004년까지는 수급이 타이트했으나 Carbide 베이스 생산능력 증설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PVC 수요가 연평균 7-8% 신장하는 등 수요 강세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03년 가을 중국 정부가 한국, 일본, 타이완, 미국, 러시아 수입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기로 결정해 아직도 수급이 타이트한 상태이다.

그러나 중국기업들의 신증설이 진행되고 있고 LG화학과 일본 Tosoh 등도 연이어 신증설을 추진해 공급부족에서 공급과잉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Carbide 베이스 생산능력 확대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제10차 5년 계획에 따라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소형 플랜트를 중심으로 Carbide 베이스 설비를 축소할 방침이나 Carbide 베이스 설비가 집중돼 있는 Sacheon, Xinjiang 등 서부지역에서는 이직도 Carbide 베이스가 중심이며, Ethylene 베이스보다 낮은 코스트 장점 때문에 대규모 신증설이 계속되고 있다.

Shanghai Chlor-Alkali Chemical도 内蒙古에 Carbide 베이스 10만톤 플랜트를 건설해 7월부터 출하가 시작됐다.

가격경쟁력이 낮은 Ethylene 베이스는 인디아로 수출활로를 개척하고 있으며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이 저렴한 Carbide 베이스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까지 100만톤 수준의 PVC 증설이 계속되나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 공급과잉을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저널 2005/12/06>